

차 팔아주고 항공사에 긴급자금...5대 주력산업 살리기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정책 과제	추진 시기	담당 부처
자동차		
·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 확대	'20.5월	관세청
· 수입관·부가세(상반기본) 납기 연장(최대 12개월) 및 징수유예(최대 9월) 지원	'20.4월	관세청
·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 내 장기보관 허용	'20.4월	관세청
· 공공부문 차량 조기구매	'20.4월	관계부처 합동
· 공공부문 차량계약서 선금 지급(최대70%) 추진	'20.4월	관계부처 합동
· 구매보조금 중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 검토	'20.4월	환경부·기재부
·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 가동 및 사업재편 컨설팅, 위기극복 R&D 등 적극 지원	'20.4월	산업부
항공		
· 대형항공사(FSC) 자구노력 전제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 기금결제 후 긴급자금 산은·수은 우선 지원	'20.4월	기재부·금융위·국토부
· 저비용항공사(LCC)는 3,000억 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 조속 집행 및 필요시 추가지원 방안 마련	'20.4월	기재부·금융위·국토부
·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5월분→3~8월분)	'20.6월	국토부
·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 또는 징수유예	'20.7월	행안부·지자체
· 항공기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특종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20.4월	고용부·국토부
· 항공기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	'20.4월	고용부·국토부
해운		
· 해진공 P-CBO에 출연(370억원), 우순위투자자로 참여하여 P-CBO내 해운사 채권비중 확대	'20.5월	해수부·금융위
· 영세 중·소선사 회사채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	'20.5월	해수부
· 국책해운사 간 인수·합병시 해진공이 피인수·합병기업 직접투자 육은 인수·합병기업 자금지원	'20.5월	해수부
· 해진공의 S&LB 선박 원리금 1년간 납부유예	'20.4월	해수부
· 해진공 및 자산관리공사의 선박 S&LB 프로그램 확대(각각 1,000억원→2,000억원)	'20.4월	해수부·금융위
· 해진공이 해운사의 기존선박에 우순위 투자	'20.5월	해수부
· 산은·수은이 지원중인 선사의 유동성 악화시 추가 금융지원 검토	'20.4월	기재부·금융위
정유·조선		
· 유류세(교통·항공·에너지, 개별소비세) 및 수입품관·부가세 납기 연장	'20.4월	관세청·관세청
· 제작금융(20년 약 8조원) 지원	'20.4월	금융위·산업부
·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유지 및 적기 발급	'20.4월	금융위·산업부
·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 보세 적용 일몰로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IS 등 필요인 부품까지 확대	'20.5월	관세청·산업부
·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검토	'20.6월	고용부·산업부

5대 주력산업에 구제 위해 맞춤형 지원 대책 관용차 8700대 조기구매...유류세 납기 연장

정부가 자동차·항공 등 5대 주력산업을 살리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관용차를 조기구매하고 대형 항공사와 해운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유류세 납부연장 등 업종별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력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 정부·공공기관 관용차 8700대 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수출 급감에 따른 수요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차량 8700여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비율을 올해 전체 전기차 지원물량 7만3000대 중 5500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원활한 자동차 부품 공급을 위한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현재와 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올해 상반기분 부가세는 최대 1년 납기를 연장하고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연 9.125%의 가산세가 면제되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도 보류된다.

◇ 대형 항공사 긴급자금 투입...자구노력 전제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해운업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한 긴급자금 수혈에 나섰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일차리 안정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이 설치되기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2월 발표된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을 올 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를 추진하는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항공기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기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사에는 1조25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P-CBO(자산담보보증권)를 통한 해운사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진공이 코로나19 대응 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투자자로 참여해 P-CBO내 해운사 채권비중을 26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단기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유류세 납부 연장...'유가쇼

크' 정유사 숨통

조선·정유 산업에는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한다. 4월 정유사가 납부해야 할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를 7월 말로 3개월 납기연장하고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부가세 납기도 5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유류세 납기연장으로 월 1조4000억원 정도의 세부담 절감 효과를 가진다. 수입품목 관세 부과 연장은 월 9000억원 규모의 세부담 절감 효과를 가진다.

조선에는 올해 약 8조원 금융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안에 정유 유류세와 관세 납기 연장, 조선업 제작금융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 대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5월 중에는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5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수준이며 수출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에 이른다"며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경기지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코로나發 中企 충격 현실화

중소 취업자·제조업 가동률·자금 사정 등 2008년 이후 최저

중소기업연구원은 주요 중소기업과 관련한 주요 경기 지표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기연은 23일 발표한 '4월

KOSBI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의 제조업 평균가동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중소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만1000명이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3월 자금 사정(SBHI) 역시 전년동월 대비 10.1포인트 감소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평균가동률(2월) 역시 69.6%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

준이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역시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3월 체감경기는 전년동월대비 43.5포인트 하락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 전통시장의 3월 체감경기는 전년동월대비 모든 업종에서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 거래는 농축수산물, 음식,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5% 증가했다. 특히 △농축수산물(103.7%↑) △음식서비스(82.2%↑) △음식·식료품(71%↑) △생활용품(52.8%↑) 등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거래 중 인터넷 쇼핑은 3조8182억원, 모바일 쇼핑은 8조1436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동월대비 12.4%, 31.1%씩 증가했다.

신봉우 기자



정속성·주행성능 높은 2020 쏘나타 출시

현대자동차가 23일 8세대 쏘나타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0 쏘나타를 출시했다.

2020 쏘나타는 정속성과 주행성능이 향상돼 상품성이 강화됐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우선 전체 모델에 윈드실드 폴딩과 기존보다 두꺼워진 1열 픽스드 글라스를 적용해 정속성을 높였다.

가솔린 2.0 모델은 이중 접합 차음유리를 추가하고, 변속 패턴 변경을 통해 가속 응답성도 개선했다.

고객 선호 사양도 확대 적용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트림인 프리미엄 패키지와 프리미엄 밀레니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프리미엄 패밀리·밀레니얼 구매고객의 95% 이상이 선택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사양이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프로젝트 타이플 LED 헤드램프도 기본 적용됐다. 기존에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만 적용됐던 나과 가족 시트를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 고급감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했다.

2020 쏘나타의 가격은 가솔린 2.0 2326만~3217만원, 셀슈어스(1.6가솔린 터보) 2427만~3287만원, 하이브리드 2754만~3579만원, LPi 2.0(일반판 대응) 2575만~3232만원이다.

농심, 백산수에 '이지오픈' 라벨 적용



농심은 백산수 용기에 분리수거가 쉬운 '이지오픈'(easy open) 라벨을 적용하고 페트병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 대비 13.5%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유유나 기자

코로나19 충격에 전세계 車공장 10곳 중 7곳 '스톱'

공장 가동률 29%...국내도 안심 못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장 가동률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자동차 생산 공장 10곳 중 7곳이 멈췄다는 의미다. 국내 브랜드의 생산·수출 급감도 현실

화되고 있는 만큼 세금납부 유예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글로벌 13개 브랜드의 30개 공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일 기준 213곳 가동이 중단됐

다고 23일 밝혔다. 가동률은 29%다.

이번 조사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14개국의 자동차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 GM의 경우 8개국에 보유한 38개 공장 중 34개 공장이 스톱했다. 가동 중단비율은 89.5%에 이른다.

다임러벤츠가 10개국에 보유한 27개 공장 중에서는 24곳(88.9%)

이 가동 중단됐다. 이어 FCA 85.7%, 르노 85.0%, 포드 82.8%, BMW 81.2%, PSA 76.0%, 혼다 68.2%, 폭스바겐 61.5%, 닛산 60.7%, 테슬라 50%, 토요타 46.3%, 현대·기아차 35.3% 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 자동차공장은 아직 완전 셧다운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감산 및 라인별 생산 중단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